장애인 부모들의 지역에서 임파워먼트



◆전) 인천장애인 부모연대 5대 지부장

◆전) 인천 계양지회 지회장

◆전) 아모르카페 대표

◆현) 장애인거주시설 지키미 단장

◆현) 인천장애인 부모연대 고문

◆현) 사회적기업 위더스 함께걸음 이사

◆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 강사

박상현　지역사회 활동가

장애인 부모로 산다는 것

▷ 장애인 복지관 재활 프로그램, 재활치료실 등
입소문에 따라 다니는 순례자

▷ 선착순, 면접 , 대기 등 경쟁으로 인한 입시지옥과
과도한 치료비 부담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순종적이고 숙명적 태도

▷ 미래에 대한 불안

부모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추진 하자.
-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더불어 당당하게 살자.

인천시 계양구 지역 사례

1. 인천 장애인 부모연대 발자취

2. 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고취

- 장애인부모조직 역량강화 및 다양한 활동
- 장애인 정책의지양과 실천
- 시민연대 조직과의 호혜관계 와 펀드레이징

1. 인천 장애인 부모연대 발자취

일반학교 장애학생 도움이 제도 도입 촉구

↓

비영리 인천 통합부모회 설립

↓

사)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인천 지부

↓

사)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인천 지부 계양지회

2.*지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고취
- 장애인부모조직 역량 강화 및 다양한 활동



가족 합창단



가족 힐링 나들이

부모교육 및 활동 보고

우수 마을 기업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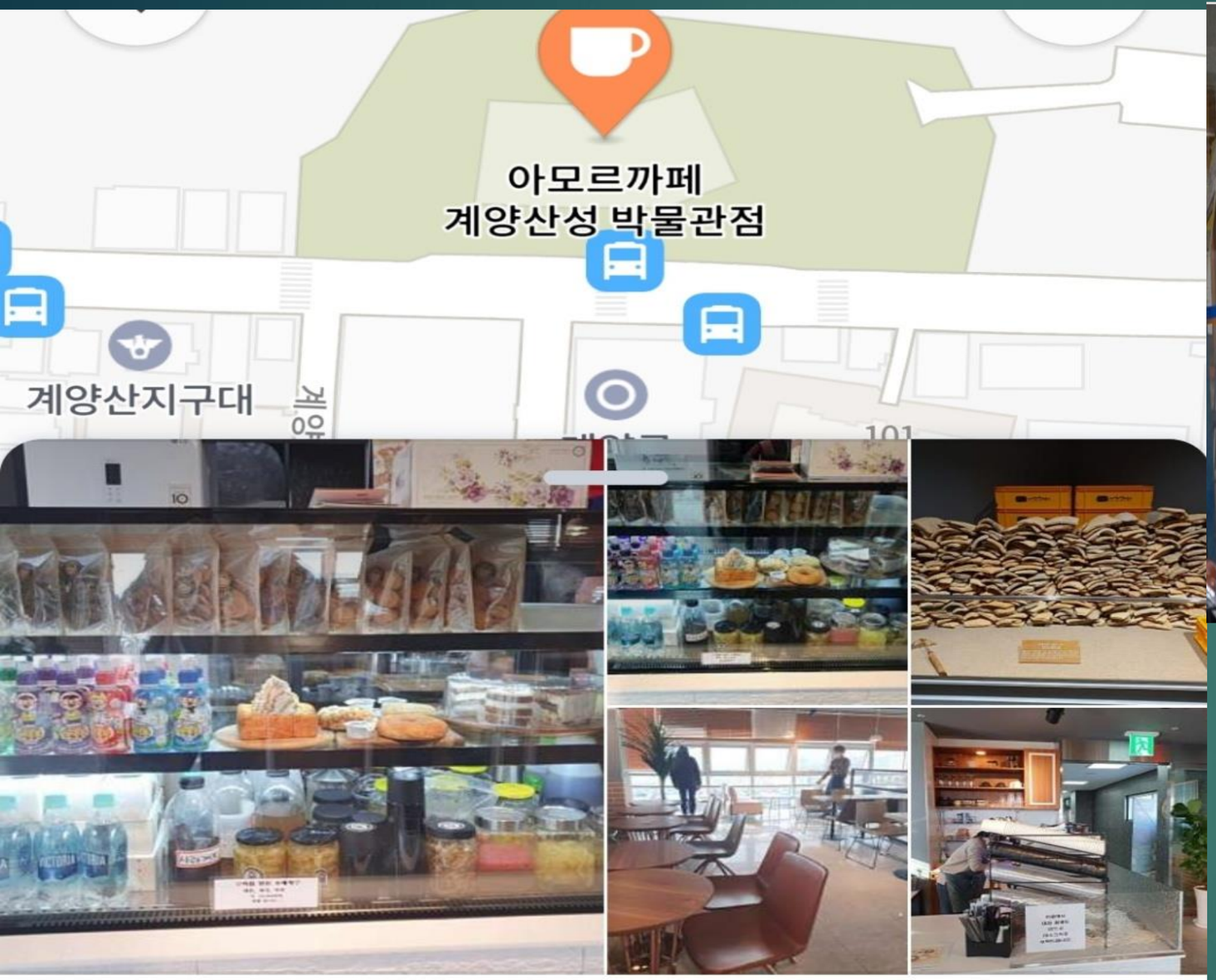
– 장애인 정책의 지양과 실천
〔 공공기관 평생 프로그램, 생활체육 시설 이용〕







-공공기관 내 성인기 장애인 일자리 고용 창출
(마을 기업 아모르카페 운영)





아모르까페 계양산성 박물관점

카페,디저트

★ 4.55/5 · 방문자리뷰 151 · 블로그리뷰 8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안심식당



- 시민연대 조직과의 호혜관계 와 펀드레이징
- 지역의 협력자, 봉사자, 기업후원

서울매일

2022년 06월 21일 (화)
수도권 12면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힐링 선사~♬

계양구 지사보협, 장애 인식 개선 '사랑의 작은 음악회' 열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종호)는 지난 18일 계양산성박물관 2층 전망대에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사랑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랑의 작은 음악회는 인천장애인부모연대 계양지회(회장 한혜지)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아모르카페의 후원을 받아 주관한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아리 활동으로 함께 배운 성악, 바이올린, 기타 연주 실력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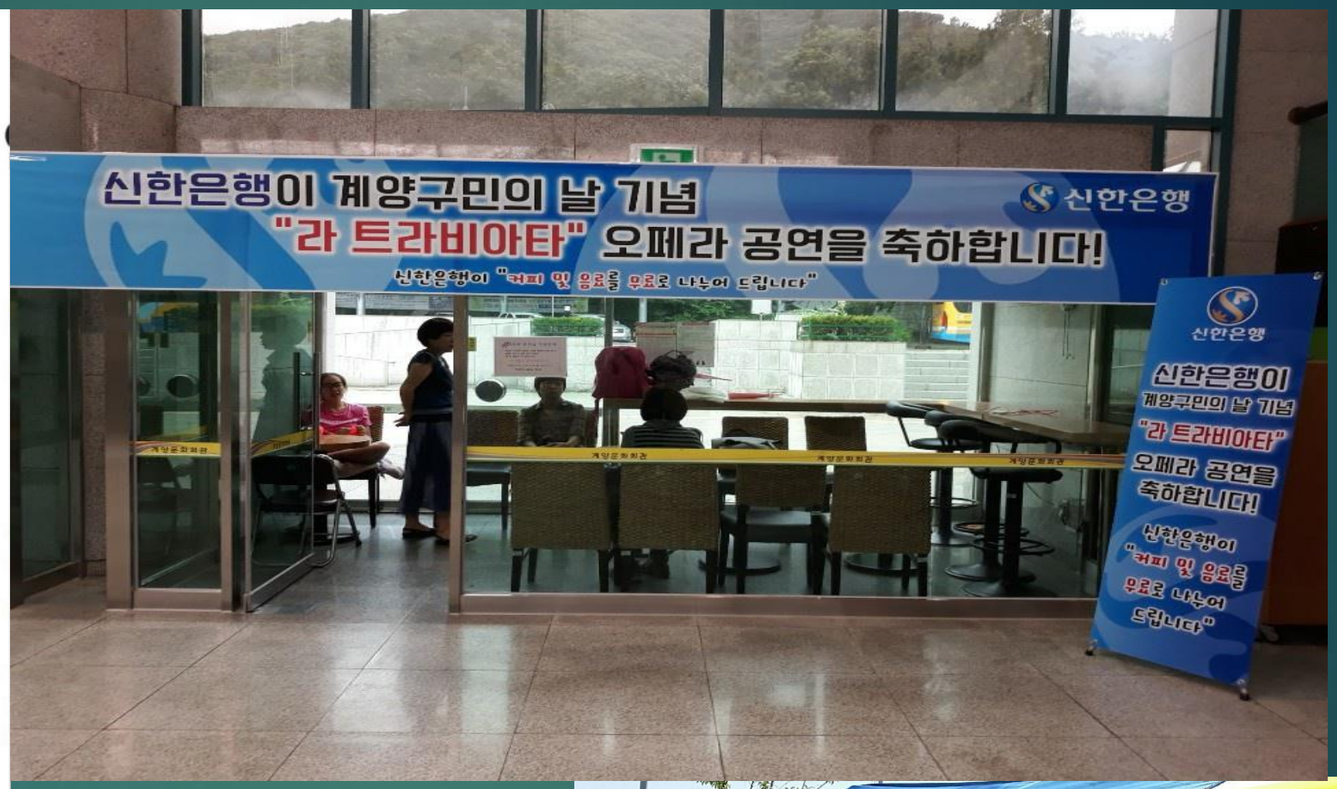
이날 음악회는 관내 장애인 단체, 유관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엔젤스앙상블의 '맘마이아, 라테츠키' 연주를 시작으로 바이올린, 성악, 플루트 연주 등 아름다운 선율로 힐링의 시간은 안겨주었다.

특히, 음악회의 백미로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함께 합창하며, '당신'의 소중함과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는 뭉클함을 선사했다.

한혜지 인천장애인부모연대 계양지회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발달장애인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계양구 지역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장애·비장애 통합 동아리 3팀[인천장애인부모연대계양지회(사랑의 작은 음악회), 사랑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행복을 굽는 파티시에),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계양구지회(오손도손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강현모 기자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감사 합니다.

